

보도시점 2026. 5. 20.(수) 06:00 (수요일 석간) 배포 2026. 5. 19.(화)

초여름 찾아지는 큰부리까마귀 공격, 등지 근처 피하고 우산·모자로 대비하세요

- 국민 안전 및 공존 위한 행동 요령 안내, 관리업무 안내서 지방정부에 배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5월부터 7월 사이 부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큰부리까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큰부리까마귀 생태 및 관리업무 안내서’를 5월 20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는 지능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 최근 도심지에서 번식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아직 비행이 서툰 새끼가 등지를 떠나, 지면 가까이에 머문다. 이 시기 부모 새는 등지나 새끼 주변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위협으로 인식해 머리와 목 부위를 향해 날아드는 등 강한 방어 행동을 보인다.

큰부리까마귀 공격에 대비하여 △우산·모자 등 보호구 착용, △등지 경고 표지 구간 우회, △큰부리까마귀와 직접 눈 맞춤 회피, △음식물 노출 금지, △위험 구간 신속 통과 등 예방 행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먹이 주기, △등지나 새끼 만지기,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위협 행위, △독극물 살포 또는 독극물 먹이 배치, △무허가 포획 시도 등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큰부리까마귀 공격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 안전센터 또는 지방정부 환경부서에 신고하고, 부상 시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할 때는 등지나 새끼 발견 위치, 피해 발생 장소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추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을 돕기 위해 배포하는 ‘큰부리까마귀 생태 및 관리업무 안내서’에는 큰부리까마귀의 생태 특성, 피해 유형, 관리 전략, 국민 안전 행동 요령, 민원 처리 절차 등이 담겼다.

아울러 국립생물자원관은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협력해 수도권 큰부리까마귀 서식 정보를 수집하고, 도심 내 개체군 분포와 공격 행동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가적인 피해 예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매년 반복되는 큰부리까마귀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행동 요령 숙지와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와 야생생물 공존을 위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큰부리까마귀 생태 특성.
 2. 국민 안전 행동 요령.
 3. 큰부리까마귀 생태 및 관리업무 안내서(지방정부 배포용) 개요.
 4. 큰부리까마귀 정보 수집 참여 안내.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신서희 (044-201-7248)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조류연구팀	책임자	과 장	김창무 (032-590-7566)
		담당자	연구사	최유성 (032-590-7129)

항 목	주요내용
종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명 : 큰부리까마귀 ○ 학 명 : <i>Corvus macrorhynchos</i> ○ 영 명 : Large-billed Crow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분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표적인 텃새로 전국에 서식 ○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중국, 러시아 극동, 사할린, 쿠릴열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서식
생태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길이 56.5cm로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크며, 전체적으로 검고 광택이 있음. 윗부리가 크고 굽어 있으며, 이마와 부리의 경사가 심해 직각으로 보임 ○ 번식기 3~7월, 새끼 독립시기 5~7월 ○ 산란수 4~6개, 포란(부화를 위해 새가 알을 품는 기간) 20일, 육추(알에서 깬 새끼는 기르는 기간) 30~35일 ○ 단독 또는 작은 무리를 이뤄 산림, 숲에 주로 서식하며, 주거지 및 농경지 등 다양한 환경에도 서식 ○ 잡식성으로 낱알, 과일, 죽은 동물의 사체, 곤충류, 조류의 알과 새끼 등 다양한 종류를 먹음 ○ 번식기에는 쌍을 이뤄 행동하고, 비번식기에는 무리를 이룸
도심 적응 핵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기억 능력 : 먹이 위치, 위험 패턴을 기억하고 행동 조정 ○ 사회성 :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개체간 정보 공유(먹이, 위험 회피 등) ○ 다양한 먹이 자원 이용 : 곤충, 과일, 소형동물, 잔반, 쓰레기 등 ○ 도시 구조물 이용 : 전선, 가로수, 건물 구조물을 휴식처나 둥지 장소로 활용
위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수원 등 농작물 피해 및 정전 피해 보고 ○ 최근 도심 주거지 인근의 녹지공원에서 번식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번식기에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공격하는 위협 행동을 취함

○ 번식기 공격 예방 행동 요령

행동 요령	내 용
보호구 착용	모자·우산·헬멧 등을 착용하거나, 가방을 머리 위로 들어 머리·목 부위를 가립니다.
경고 표지 구간 우회	경고 표지 구역은 반드시 표시된 우회 경로를 이용합니다.
직접 눈 맞춤 회피	시선을 직접 마주치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시선을 피해 침착하게 이동합니다.
음식물 노출 금지	음식물은 큰부리까마귀를 유인합니다. 이동 중 음식 노출을 삼갑니다.
위험 구간 신속 통과	위험 구간은 멈추지 말고 신속히 통과합니다. 뛰지 않고 침착히 걸어서 이동합니다.

큰부리까마귀 공격 대비

새끼 이르기 5~7월 집중 주의

번식 및 새끼 독립 시기(5~7월)에 도심에서 큰부리까마귀 공격(방어행동)이 집중됩니다.
아래 행동요령을 숙지하세요.

● 번식기 공격 예방 행동 요령

<p>1</p>  <p>보호구 착용</p> <p>모자·우산·헬멧 착용. 가방을 머리 위로 들어 머리·목 부위를 가립니다.</p>	<p>2</p>  <p>경고 표지 구간 우회</p> <p>경고 표지 구역은 반드시 표시된 우회 경로를 이용합니다.</p>	<p>3</p>  <p>직접 눈 맞춤 회피</p> <p>시선을 직접 마주치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시선을 피해 이동합니다.</p>	<p>4</p>  <p>음식물 노출 금지</p> <p>음식물은 큰부리까마귀를 유인합니다. 이동 중 음식 노출을 삼갑니다.</p>	<p>5</p>  <p>위험 구간 신속 통과</p> <p>위험 구간은 멈추지 말고 신속히 통과합니다. 침착히 걸어서 이동합니다.</p>
---	---	--	---	---

공격을 받았다면: 멈추지 말고 신속히 이동 → 119 또는 지자체 관할 부서 신고(동자·피해 위치 상세 전달) → 부상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 금지 행동

금지 행동	내 용
먹이 주기 금지	도심 정착 및 번식을 촉진하고, 공격 행동 강도를 높입니다. 일체의 먹이 제공을 금지합니다.
둥지·새끼 만지기 금지	보호를 위한 급강하 공격 행동을 유발하고, 사람 냄새가 남으면 부모새가 새끼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위협 행위 금지	막대기·팔 휘두르기,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등의 행동은 큰부리까마귀의 공격성을 급격히 높입니다.
독극물 먹이 배치 금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큰부리까마귀 외 다른 야생동물에 피해를 주는 등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법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불법 포획 시도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의적인 포획 및 사살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큰부리까마귀 대응 금지 행동

⚠ 야생생물법 위반

아래 행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큰부리까마귀의 공격성을 급격히 높이는 행위입니다.

● 금지 행동

<p>1</p>  <p>먹이 주기 금지 도심 정착 번식을 촉진하고 공격 행동 강도를 높입니다. 일체의 먹이 제공을 금지합니다.</p>	<p>2</p>  <p>둥지·새끼 만지기 금지 보호를 위한 강한 공격 행동을 유발하고, 사람 냄새가 남으면 부모새가 새끼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p>	<p>3</p>  <p>위협 행위 금지 막대기·팔 휘두르기,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는 공격성을 급격히 높입니다.</p>	<p>4</p>  <p>독극물 먹이 배치 금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p>	<p>5</p>  <p>불법 포획 시도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임의적인 포획 및 사살시 처벌받습니다.</p>
--	--	--	---	---

- 본 안내서는 도심지에서 큰부리까마귀로 인해 발생하는 공격, 쓰레기 훼손, 배설물 오염 등 다양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방향과 대응 절차를 제시하고자 마련된 자료임

<안내서 주요 내용>**□ 작성 배경**

- 도심 내 큰부리까마귀 증가로 인신 공격, 쓰레기 훼손, 배설물 오염, 소음 등 민원 증가로 지방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기준 필요

□ 주요 원인

- 음식물쓰레기 등 풍부한 먹이, 도시 녹지 확대, 천적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생존율 증가, 높은 지능과 적응력이 복합적으로 작용

□ 주요 피해

- 번식 및 새끼 독립시기인 5~7월에는 둥지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급강하 공격 발생 가능
- 쓰레기 훼손, 배설물 오염, 소음, 소형 조류 포식 등 생활·생태 피해도 동반

□ 관리 원칙

- 단순 포획·퇴치보다는 비살상 관리, 먹이원 차단, 번식기 안전관리, 데이터 기반 대응, 생물다양성과의 균형을 우선

□ 주요 관리 방안

- 번식기 위험 구간 지정, 경고 표지와 우회 동선 안내, 시민 행동요령 홍보, 음식물쓰레기 노출 차단, 민원 집중지역 GIS 관리 등

수도권 큰부리까마귀 행동 연구 프로젝트

까마귀를 보면, 영상을 찍어주세요

2026.05. ~ 2026.12. 예정



QR 찍고 참여하기



참여방법

1) 까마귀 영상 업로드 2) 개체수 선택 후 제출

매달 참여자 40명 사례 지급

우수 참여자 상위 25명 & 랜덤 추첨 15명

프로젝트 개요

수도권에 서식하는 큰부리까마귀의 영상 및 위치를 수집하여 도시적응행동을 분석하는 시민과학연구입니다. 인간을 향한 위협, 쓰레기 훼손 등의 도심에서 발생하는 **갈동 행동**을 중심으로 제보해주세요!

⚠️ 촬영시 큰부리까마귀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공격에 주의하세요.

큰부리까마귀 찾는 방법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생김새

검고 큰 몸 + 굵은 부리
→ 대부분 큰부리까마귀입니다

위치

"까악" 소리가 들린다면
하늘이나 건물, 나무 위를 보세요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DSCAPE & ECOLOGICAL
PLANNING LAB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